

‘일경험드림 만남의 날’...청년들 구직 열기 ‘후끈’

광주시, 구직청년·구인기업 연결 행사장에 청년 2000여명 몰려 참여자중 420명 ‘드림청년’ 선발 전력거래소 등 310개 기업 참여



광주시가 일자리 부조화 해소를 위해 지역 구직 청년과 구인 기업을 연결해주는 ‘드림 만남의 날’ 행사에 청년구직자 2132명이 몰렸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참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드림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은 광주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적성에 맞는 일경험과 급여, 직무역량 강화 교육, 연계 활동 등을 지원하는 광주시의 대표적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드림 만남의 날’은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광주시는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참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시청 1층 시민홀에서 ‘드림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청년구직자 2132명이 몰려 눈길을 끌었다.

광주시 제공

림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드림터)과 구직 청년이 만나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직무 등을 상담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전력거래소, 광주신용보증재단, 한국알프스(주), 해양에너지(주), ㈜두등기업 등 공공기관, 지역 중소·

중견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기관 등 310개 드림터가 참여했다.

시민홀에 마련된 300여개 부스에서는 드림터에서 제공하는 직무 등에 대한 상담과 함께 면접 등이 진행됐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청년정책 홍보도 함께 이뤄졌다.

행사에 참여한 청년 구직자들 중 420명은 ‘제17기 드림청년’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드림청년은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을 통해 올해 상반기 일경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은 매칭된 드림터에서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최대 5개월간 일경험을 시작한다.

선발 결과는 오는 26일 광주청년통합플랫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광주시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선발된 17기 드림청년은 3월4일부터 6일까지 공통 교육을 받는다. 공통 교육은 일경험 시작 전 드림터의 적응을 돕기 위

해 실시하는 온보딩(적응 지원) 교육, 노무 기초, 직장 내 소통기술, 사무·기획·개발·디자인 등 직무 이해 중심으로 이뤄진다.

일경험 기간에는 ‘드림매니저’(전담 매니저)들이 참여 청년과 사업장에 대해 상시 방문과 상담을 진행하는 등 청년의 일 적응을 돕고 직무상황과 근무 환경을 점검한다.

또 현장 선배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 청년이 지역 공동체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일경험드림 사업은 2017년부터 해마다 추진돼 7200여명의 광주 청년에게 직무적성 탐색과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번 ‘드림 만남의 날’ 행사에서 청년들의 뜨거운 구직 의욕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도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중진공,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내달 10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저감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 업체가 아닌 기업이어야 한다.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업종 영위

기업 등은 가점부여를 통해 선정 시 우대한다.

모집 분야는 △기초 트랙(75개사 내외) △고도화 트랙(5개사 내외)으로 나뉘며, 트랙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기초 트랙 보조율은 50%이내, 고도화 트랙은 70%이내이며, 양 트랙 모두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탄소 배출 현황을 반영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지원우대 업종과 설비 목록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사업 연계 및 원가계산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또 공급망의 탄소 배출량 관리 강화에 따라 공급망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

원하는 ‘공급망 트랙’을 신설했으며, 상반기 중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3월10일까지 중진공 ESG통합플랫폼(https://esg.kosme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국내의 대기업의 공급망 탄소 배출량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도 탄소중립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맞춤형 탄소 감축 컨설팅과 설비투자 비용을 일괄 지원해 중소벤처기업이 탄소중립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중진공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식기세척기’ 신제품 출시

‘AI 맞춤 세척+’ 기능 탑재

삼성전자는 더 똑똑해진 AI 기능과 주방공간에 일체감 있게 녹아드는 미니멀한 디자인을 갖춘 2025년형 ‘비스포크 AI 식기세척기’ 신제품을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식기세척기 신제품은 프리미엄 라인인 ‘인피니트 라인(Infinite Line)’ 2개 모델과 다양한 옵션을 고를 수 있는 ‘비스포크(BESPOKE)’ 라인업 11개 모델로 구성됐다.

2025년형 ‘비스포크 AI 식기세척기’ 전 모델은 한층 더 고도화된 ‘AI 맞춤 세척+’ 기능을 탑재해 최적화된 식기 세척 경험을 제공한다.

‘AI 맞춤 세척+’ 기능은 세척부터 헹굼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고감도 센서가 수시로 식기 오염도를 센싱하고, AI 알고리즘을 통해 오염도를 분석해 헹굼 횟수와 세척 온도를 자동 조절한다.

이를 통해 식기의 오염도가 적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물 사용량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고, 식기에 음식물이 많이 묻어 있거나 기름기가 많은 경우에는 더욱 강력하게 세척한다.

14인용 식기세척기를 ‘AI 맞춤 세척+’ 기능으로 동작시킬 경우, 동작 시간은 최대 34분, 에너지 소비량은 최대 24%, 물 사용량은 최대 절반 가량 절약할 수 있



비스포크 AI 식기세척기 신제품 출시. 삼성전자 제공

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식기세척기’ 신제품은 손잡이가 없는 깔끔한 디자인을 적용해 주방 공간과 가구에 일체감 있게 어우러진다. 도어에는 가볍게 눌러 쉽게 문을 열 수 있는 ‘오토 오픈 도어(Auto Open Door)’ 기능이 적용됐다.

또 AI 음성비서 ‘빅스비(Bixby)’를 통해 손대지 않고 편리하게 도어를 열 수 있다.

출고가는 제품 타입과 색상에 따라 121만원에서 236만원이다. 박소영 기자

광주세관, FTA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추진

광주본부세관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산지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 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다.

광주세관은 FTA 계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관세사를 희망기업에 보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참여희망 기업은 오는 24일부터 3월7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가능하다.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자문 비용을 지원하며 신청 수요가 많을 경

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은 광주세관 누리집이나 FTA 포털 누리집 사업공고를 참고하고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동수 세관장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우리지역 수출기업이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통해 FTA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재테크 칼럼

금의 귀환, 불안할 때 금값하는 금(金)

지난 5년전 동안 권력과 부의 상징인 금이 사상 최고치를 훌쩍 넘어섰다.

국제 금값은 지난 1년간 50% 넘게 올랐고, 한국의 금값은 약 70%가 올랐다. 한국의 금값이 국제시장의 금값보다 높은 상승을 보인 것은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과 마찬가지로 금에도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의 폭등의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국제 정세의 불안과 각국에서 코로나 인플레이션 이후 폭

등했던 물가가 생각만큼 잡히지 않고 환율의 불안정성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설마 했던 무역전쟁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값에 기름을 부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세상이 불안해지면 그 불안을 먹고 상승한다. 국가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믿을 것은 금밖에 없다는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평온하고 호경기 때는 금값은

하락하거나 횡보한다. 부동산, 증권 등 다른 자산이 상승하기 때문에 굳이 이자도 없는 금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극성을 부리고 불경기가 시작되면 금이 진가를 발휘한다. 금은 물가를 거의 완벽하게 방어하고 오히려 물가보다 더 오른다. 더 정확히는 금값이 오르기보다는 달러를 비롯한 각국의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불안해졌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른다.

더욱이 지금은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을 맞고 있다. 불황에 실질소득은 줄어서 소비도 하지 않는데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부동산, 증시 가릴 것 없이 침체하고 있는데 이때 믿을 것은 금이라는 시장심리가 작용하는 이유다.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을 비롯한 BRICS 국가의 금 매수와 미국의 세계 금 시장의 허브인 영란은행에 대한 금 현물

교환의 증가도 당연히 금값 상승의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중국 등은 세계 기축통화이자 미국의 최대대기인 달러의 지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그 방안 중 하나로 비트코인과 함께 금을 도구로 쓸 생각을 하고있는 것 같다.

필자는 1년여 전부터 자산 중의 일부를 금에 투자하라고 했는데 지금 금값이 크게 올랐지만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금의 국제 시세에 비해 한국의 금값이 무려 20%나 비싸다는 것은 비정상이다. 조정을 거쳐서 국제 시세와 균형을 맞출 때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불안할 때는 금이 금값을 할 것이다.